2025.02.27.(목) 증권사리포트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하이브
BTS 컴백과 4팀의 신인 남자 그룹 데뷔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상향 및 최선호주 유지

작년 11월 2번의 증명, 3번째 기회의 자료에서 주장했듯이 과거 동방신기/빅뱅의 제대 전후로 주가(혹은 밸류에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최근 주가 역시 매우 유사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최근 몇 달간 주가가 50% 이상 상승하면서 2024년 예상 P/E 40배 내외에 근접해 단기적인 주가 레벨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를 정당화할 가파른 EPS 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BTS의 매출이 온기 반영되는 2026년에 약 300만명 내외의 월드 투어 발표와 현재 환율 수준(약 1,400원/$)이 지속된다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000억원에 근접할 것이고, 이는 약 15조원(OP 약 30배) 내외의 시가총액 혹은 약 35만원 내외의 주가까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 내 3번의 북미 투어(스트레이키즈, 제이홉, 블랙핑크) 발표 때마다 주가가 유의미한 상승을 했다는 점도 하반기 BTS이 투어 발표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목표 P/E를 상향해 목표주가를 310,000원(+11%)으로 상향하는데, 추후 모든 기획사에 상향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동반 상향할 계획이다. 최선호 섹터이자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지속 제시한다.

4Q Review: OP 653억원(-27% YoY)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7,253억원(+19% YoY)/653억원(-27%)으로 컨센서스(835억원)를 하회했다. 연간으로는 BTS의 군입대로 매출 비중이 20%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앨범은 진(BTS)/세븐틴/TXT/엔하이픈/투어스 등 대다수의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면서 1,100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으며, 세븐틴/엔하이픈/TXT 등의 투어 약 100만명의 관객 수가 반영되면서 연동된 MD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다만, 영업적으로는 콘서트의 이익률 저하 및 인건비 증가(주식보상비 등) 등, 영업외적으로는 이타카 관련 상각비 등이 여전히 높게 반영되면서 이익은 부진했다.

BTS 완전체 컴백과 향후 2년간 신인 남자 4팀 데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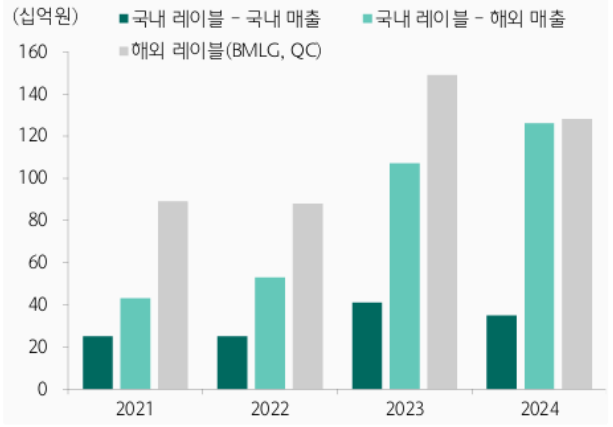
2024년은 BTS 완전체 공백 속에 미국/라틴 등 지역적 확대 및 신성장 사업인 게임/AI 등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비용이 선제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는 BTS가 컴백하고,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이타카에서 매니지먼트 강화를 통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각 비용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향후 2년 내 한국/일본/미국/라틴에서 신인 남자 그룹이 데뷔 예정으로 총 10팀의 남자 그룹 라인업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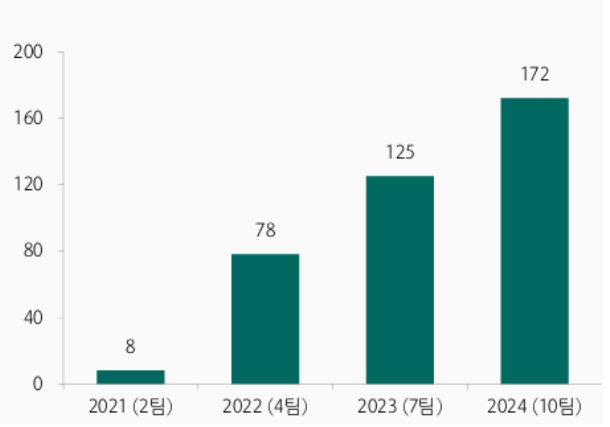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776.2	2,178.1	2,254.5	2,604.7
영업이익	236.9	295.6	184.8	299.7
세전이익	96.5	250.1	19.4	344.4
순이익	52.3	187.3	8.9	246.4
EPS	1,265	4,504	213	5,915
증감율	(64.92)	256.05	(95.27)	2,677.00
PER	137.15	51.84	907.98	42.43
PBR	2.59	3.33	2.79	3.33
EV/EBITDA	19.12	22.88	24.91	17.82
ROE	1.87	6.58	0.31	8.18
BPS	66,995	70,090	69,307	75,269
DPS	0	700	200	1,000

그림 6. 레이블별 음원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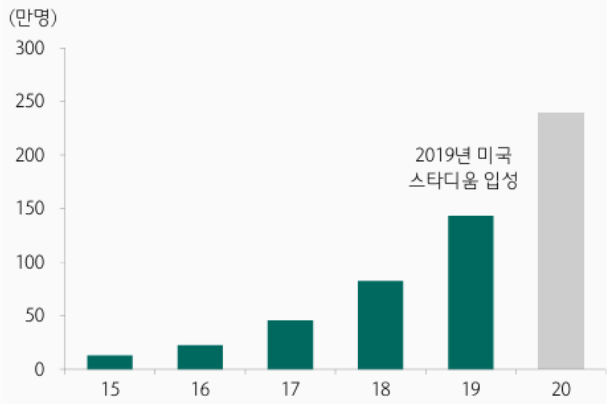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그림 7. 하이브 공연 횟수 (괄호 안은 활동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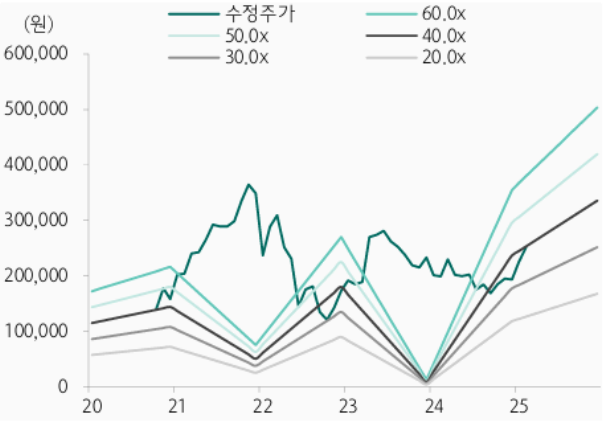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그림 8. BTS 콘서트 관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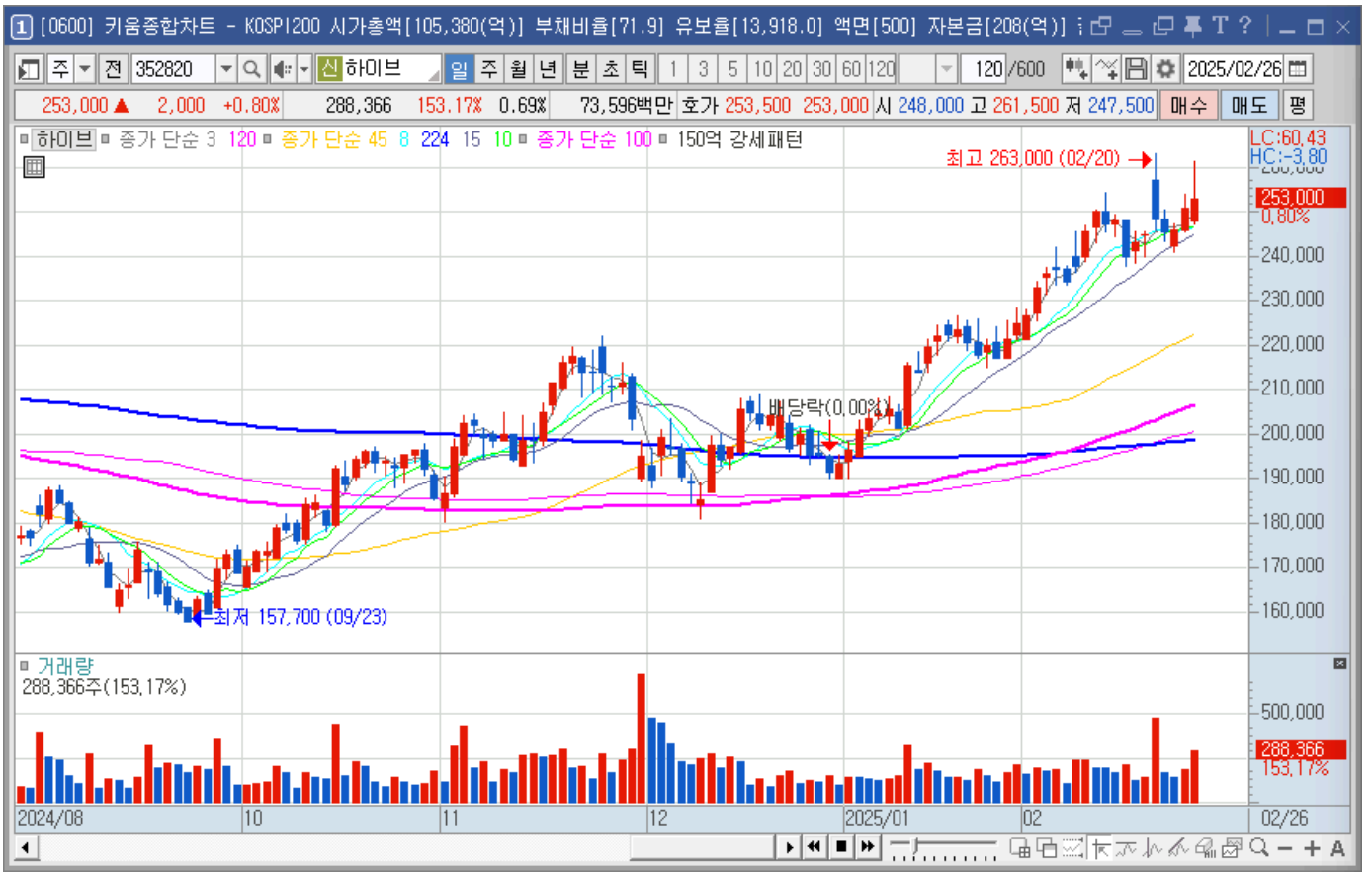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그림 9. 하이브 12MF P/E 차트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셀트리온

4Q24Re : 비용 증가로 컨센서스 하회

[출처] 유안타증권 하현수 애널리스트

4Q24Re: 비용 증가하며 아쉬운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636억원(+178.0%YoY, 이하 YoY 생략), 영업이익 1,964억원(+967.4%, OPM 18.5%)로 영업 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 3공장 상업 생산이 시작되며 관련 인건비, 준비 비용 등 운영 비용 증가와 일부 1회성 비용 등의 영향. 4Q24 제품 원가율은 49% 수준으로 3공장 가동 시작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45% 수준으로 하락. 25년부터는 허쥬마 시밀러의 상각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며, 램시마 관련 상각 비용도 25년말부터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램시마IV, 트룩시마 등 기존 제품들이 견조한 점유율 증가를 이어가는 동시에 램시마SC(유럽),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등 신규 제품 매출 비중도 커지고 있어 25년 이익율 개선될 것으로 판단.
짐펜트라(미국)의 4Q24 매출은 약 280억원 수준으로 아쉬운 매출을 기록. 이는 미국 내에서 동사와 짐펜트라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영향 및 미국 내 판매 채널 확대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 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했으며 SC 제형의 높은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25년에는 개선된 매출 기대.

유럽과 다른 미국 시장

25년 최대 5개의 신규 시밀러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 다만, 신규 시밀러의 경우에도 유플라이마 시장과 비슷하게 유럽 시장에서는 빠른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경우 초기 시장 진입은 다소 더딜 것으로 판단. 이는 공보험 제도 및 입찰 시장 중심의 유럽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는 사보험 중심 영향.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4만원으로 하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기존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소폭 하향. 목표 주가 하향은 25년 실적 추정치를 하향에 기인. 25년 헬스케어 합병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 상각 비용 반영 등이 완화되며 본격적인 이익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4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064	178.0	20.6	1,049	1.4
영업이익	196	966.0	-5.4	235	-16.4
세전계속사업이익	274	흑전	53.7	244	12.3
지배순이익	241	22,759.5	181.5	191	26.2
영업이익률 (%)	18.5	+13.7 %pt	-5.0 %pt	22.4	-3.9 %pt
지배순이익률 (%)	22.7	+22.4 %pt	+13.0 %pt	18.2	+4.5 %pt

자료: 유아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2,284	2,176	3,557	4,431
영업이익	647	651	492	1,534
지배순이익	538	536	427	1,526
PER	45.5	43.6	100.0	25.6
PBR	5.8	2.0	2.4	2.0
EV/EBITDA	28.2	26.9	46.6	20.7
ROE	13.4	5.1	2.5	8.6

자료: 유아타증권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은 우리에게

[출처] 유안타증권 이창영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9만원, 투자의견 BUY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2025년 예상 순이익 2,079억원에 P/E 멀티플 25.3배를 적용하여 산정함. 동사가 보유한 글로벌 IP 게임이 이미 모바일, 콘솔, PC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승리의 여신: 니케' (이하 '니케')가 2025년 2분기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2025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됨.

투자포인트

1. 6조원 규모의 중국 서브컬쳐 게임 시장에 2025년 2분기 Tencent를 통해 출시 예정인 글로벌 IP '니케'의 실적 모멘텀
2. 'PlayStation 5' 타이틀 중 역대 최고 평점을 갱신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2025년 6월 PC 플랫폼 (STEAM) 출시를 통한 실적 모멘텀
3. 국내 게임사 중 최고의 1인당 수익구조에서 나오는 높은 ROE

6조원 규모의 중국 서브컬쳐 게임 시장

'니케' 사전예약자수 약 320만명, Tencent의 사전예약 목표치는 800만명으로 '니케'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 예상. 기존 글로벌 캐릭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한한령 해제 등 최근 완화된 K컨텐츠에 대한 규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최소의 인원, 최고의 ROE로 밸류업 기대

동사는 2024년 1인당 4.6억원의 영업이익과 30.3%의 ROE를 시현, 국내 게임사 중 가장 효율적인 게임 개발 구조 보유. 향후 게임 흥행 시 높은 이익 레버리지와 게임 흥행 실패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타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여 가능하다는 판단임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1Q25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457	22.2	-63.3	427	7.0
영업이익	291	12.3	-66.6	265	10.0
세전계속사업이익	311	6.5	-72.1	322	-3.4
지배순이익	222	-9.9	-76.4	254	-12.6
영업이익률 (%)	63.7	-5.7 %pt	-6.3 %pt	62.0	+1.7 %pt
지배순이익률 (%)	48.7	-17.4 %pt	-27.2 %pt	59.6	-10.9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P	2025F
매출액	653	1,686	2,199	3,192
영업이익	222	1,111	1,486	2,375
지배순이익	204	1,067	1,426	2,079
PER	-	-	24.1	17.1
PBR	-	-	4.9	3.7
EV/EBITDA	-	-	19.5	11.2
ROE	36.7	86.4	30.3	24.0

자료: 유안타증권

펨트론

HBM 검사 장비, 독보적 기술 우위 예고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머신비전 기술 기반의 검사장비 전문 기업

펨트론은 2002년 설립된 머신비전 기술 기반의 검사장비 전문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부문은 1) SMT 검사장비, 2) 반도체 검사장비, 3) 2차전지 검사장비다. 매출 비중은 SMT 검사장비가 높은 비중(3Q24 누적 기준 86.1%)을 차지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SMT 장비(SPI, AOI, MOI), 2차전지 '리드탭 검사장비'가 있으며, 최근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검사 난이도 증가에 따른 정밀 검사장비 수요 증가

HBM 적층 구조의 고도화와 AI 반도체의 고성능화로 인해 검사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2D 광학 검사 방식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 TSV 및 마이크로 범프의 미세화, 적층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3D 고해상도 이미지 분석과 실시간 인라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정밀도와 정확성을 갖춘 첨단 검사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SEMI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1,21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테스트 장비 지출액은 14.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밀 검사장비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2D와 3D 계측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검사장비가 첨단 검사장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IDM향 직납 확대 및 HBM 장비 퀄리피케이션 기대

펨트론은 MARS 장비를 통해 글로벌 SSD 및 메모리 모듈 검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IDM향 직납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메모리 모듈 검사 시장에서 후속 수주가 기대되며, 이는 매출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800WI-HBM 장비는 3D 입체 구현을 통해 기존 2D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태킹 공정 전반에서 저단부터 고단까지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HBM 적층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 결함을 사전에 감지하여 품질 안정성과 수율 향상을 동

시에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IDM을 대상으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통과 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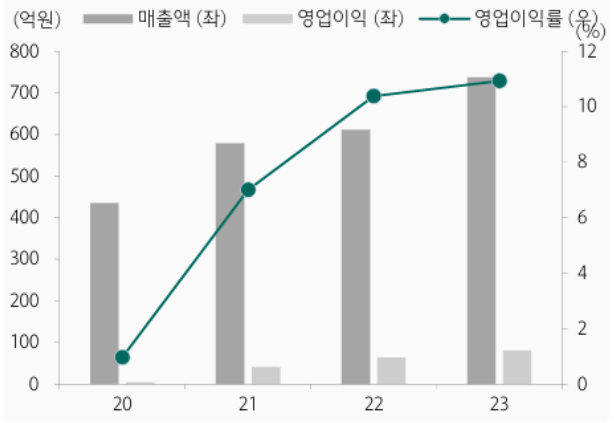
반도체 검사장비에 주목, 실적과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

펨트론의 202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575억원(-22.1% YoY), 영업손실 28억원(적자전환)으로 전방산업의 부진한 수요 영향이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도체 검사 장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IDM으로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고, 국내 IDM에서의 장비 검증을 시작으로 퀄리피케이션 통과 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검사장비 업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고멀티플을 적용받았던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펨트론 역시 유사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인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주가 리레이팅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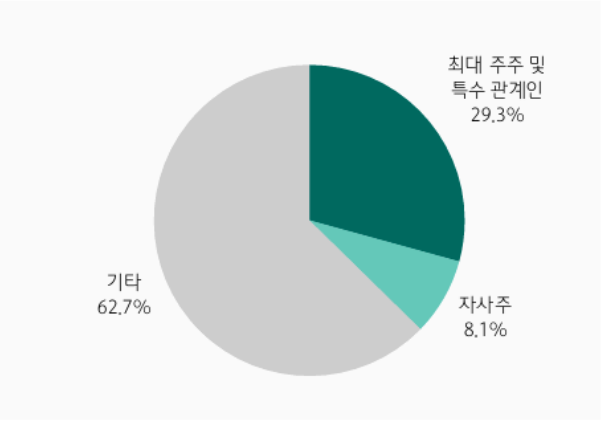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44	58	61	74
영업이익	0	4	6	8
세전이익	0	4	6	8
순이익	0	5	5	7
EPS	13	236	271	334
증감율	N/A	1,715.4	14.8	23.2
PER	0.0	0.0	10.3	26.8
PBR	0.0	0.0	2.3	5.9
EV/EBITDA	0.0	0.0	8.1	10.2
ROE	4.1	39.4	20.1	22.0
BPS	326	600	1,225	1,522
DPS	0	0	0	0

도표 1. 펨트론 매출액/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펨트론, 하나증권

도표 2. 펨트론 주요 주주구성 (3Q24 말 기준)



자료: 펨트론, 하나증권

도표 10. 8800WIR HBM: HBM용 검사장비 사진

자료: 펨트론, 하나증권

도표 11. '마스': 3D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자료: 펨트론, 하나증권

딥노이드

원격 영상판독문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2024년 머신비전 매출 급증

딥노이드는 AI기반 영상판독 솔루션 기술로 의료(병원), 보안(공항/항만), IT제조업 검사장비(머신비전)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매출액은 108억원으로 전년대비 461% 증가한 것이다. 초기의 높은 고정비로 영업손실 101억원을 기록했다. 당리서치 추정치와 근접한 수준이다. 2024년 부문별 매출액은 의료 AI 7억원, 보안AI 6억원, 머신비전 94억원, DX(AI교육 등) 2억원이다. 2025년에는 보안과 머신비전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AI도 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전체 매출이 82.4% 증가한 197억원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의료AI 원격 영상판독문 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이 크다

의료AI에서 아직 매출 규모가 작지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는 크다. 우선 딥뉴로, 딥체스트 등에서 매출이 2024년에 7억원 발생했다. 조만간 대형 검진센터 향으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4분기쯤에 생성형 AI 기반 자동판독문 생성 솔루션(M4CXR)을 출시, 2026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의료영상 판독판독 국내시장은 보험 급여시장 4,600억원, 국내 검진센터 5천억원, 외주판독 1,200억원으로 약 1조원 시장이 존재한다. 특히 향후 시장이 더 큰 일본, 아시아, 장기적으로는 미국/인도의 외주 원격 판독시장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보안AI, 머신비전에 큰 규모의 Cash Cow 창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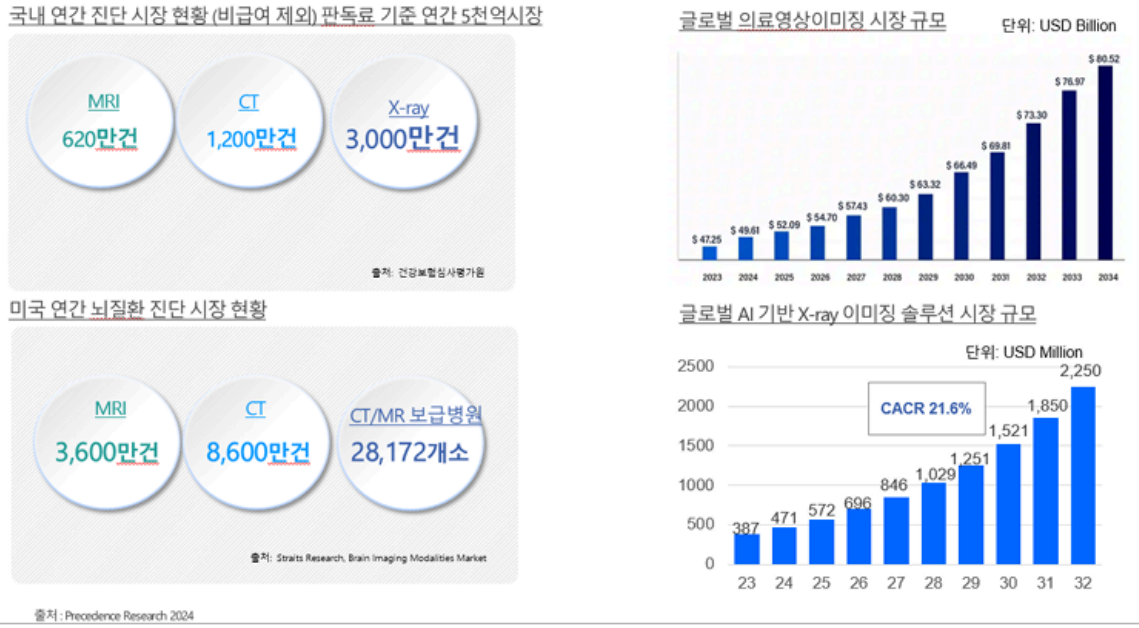
2024년 국내 공항의 보안AI 서비스에서 6억원, IT제조검사 장비 솔루션(비전머신) 에서 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4년말 기준 두 사업에서 수주 잔고가 70억원 내외이며, 2025년에 추가 수주를 통해서 매출액은 130억 내외로 전망된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3	-6	-5	-270	-10.2	-7.8	2.6	-45.0	n/a
2023	2	-7	-7	-305	-35.4	-34.7	4.4	-36.3	n/a
2024E	11	-10	-9	-840	-8.2	-30.1	4.3	-41.3	n/a
2025E	20	-2	-1	-121	-56.5	16.5	4.6	-7.8	n/a
2026E	29	5	6	543	12.7	6.4	3.4	30.8	n/a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표 2 생성형 AI 판독 솔루션 국내외 시장



자료: 딥노이드

한글과컴퓨터

4Q24 Review : AI 사업 물꼬를 트다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4Q24 Review: 본사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연간 실적은 두 자리 수 실적 성장세 지속 달성.

2024년 연간실적(연결 기준)은 매출액 3,048억원, 영업이익 40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4%, 18.2% 증가. 2023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2.0%, 36.5% 증가. 연속 2년간 두 자리 수 연속 성장.
특히 긍정적인 것은 동사의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한 것임. 클라우드 매출액이 2023년에 119억원에서 2024년에 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4% 증가함. 수익성이 양호한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큰 폭 증가(클라우드 매출 비중: 2023A, 9.3% → 2024P, 26.8%, +17.5%p↑)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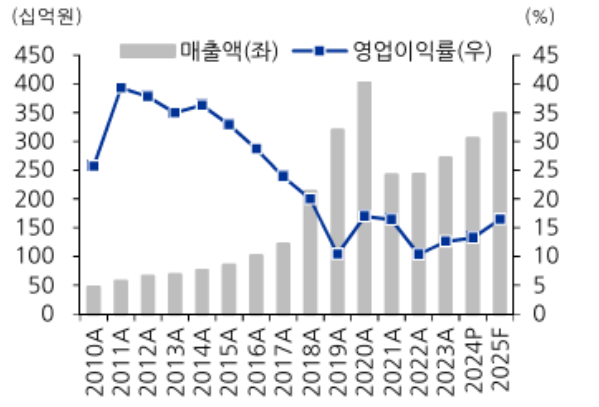
1Q25 Preview: SaaS, AI 사업 레퍼런스 확보 등으로 2025년에도 두 자리 수 실적 성장을 지속 전망.
2025년 연간 예상실적(연결 기준)은 두 자리 수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동사의 온프레미스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클라우드 관련 제품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AI 사업의 본격 확대가 예상됨.
올해 초 공공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첫 프로젝트인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함. 이외에도 동사는 B2G, B2B 고객 20여곳과 PoC를 진행 중으로 추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목표주가는 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 BUY 유지함.

12월 결산(십억원)	2022A	2023A	2024E	2025E
매출액	242.0	271.1	304.8	347.9
영업이익	25.0	34.2	40.4	57.3
세전손익	-14.8	-20.8	24.7	60.2
당기순이익	16.7	-27.5	13.4	47.5
EPS(원)	1,855	624	671	2,022
증감률(%)	159.7	-66.4	7.6	201.1
PER(배)	6.6	22.9	32.9	10.9
ROE(%)	15.8	4.6	4.8	13.4
PBR(배)	1.0	1.0	1.6	1.4
EV/EBITDA(배)	3.2	4.0	7.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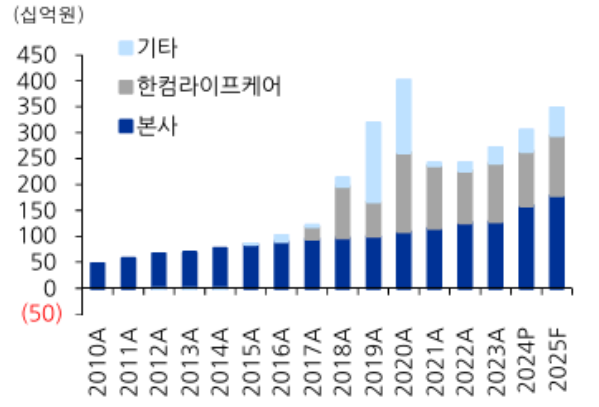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연간 매출,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연간 회사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코스맥스엔비티

중국향 실적 호조로 턴어라운드 전망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4Q24Re: 한국 법인과 호주 법인의 중국향 수출 호조로 호실적

코스맥스엔비티의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803억원(+0% YoY), 영업이익 34억원(+114% YoY, OPM 4.3%)으로 전년비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한국 법인의 수출 성장과 호주 법인의 흑자 전환이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1)한국 법인 매출액은 583억원(+8% YoY)으로 내수 부진(-18% YoY)에도 중국향 수출 실적 호조로 역대 최대 분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수출 매출은 344억원(+39% YoY)을 기록했고 한국 법인 내 수출 비중이 59%까지 확대되며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2)호주 법인 매출액은 172억원(-17% YoY)으로 전년도 고객사 신제품 매출 기저 부담으로 부진했으나 인건비 효율화와 토지세 환급 효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3)미국 법인 매출액은 46억원(-9% YoY)으로 기존 고객사 매출 공백 영향이 이어졌으며 충당금 인식 효과로 적자도 확대됐다.

25년에도 중국향 실적 성장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코스맥스엔비티의 25년 실적은 매출액 3,508억원(+10% YoY), 영업이익 209억원(+111% YoY, OPM 5.9%)으로 턴어라운드를 전망한다. 한국과 호주 법인의 중국 고객사향 수출 성장과 미국 법인의 구조 재편에 따른 적자 축소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국 법인은 25년에도 중국 직구 채널 고객사향 신제품 및 수주 확대로 수출 실적이 +17% 성장, 내수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편의점 등 신규 채널향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호주 법인은 중국향 주요 고객사향 제품 믹스 개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법인은 한국 법인을 통한 생산 이원화와 비용 효율화로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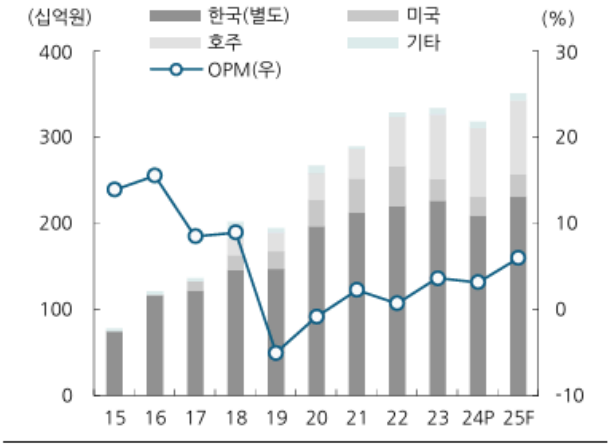
코스맥스엔비티의 목표주가는 25년 예상 EPS에 목표배수 1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22년 62%→24년 70%→25년 72%로 확대되고 있고 음식료 기업 중 중국 노출 비중이 가장 높아 중국 경기 부양 및 소비 트렌드 변화 수혜가 기대된다. 또한 전사 수익성 개선과 미국 법인의 유휴 공장 매각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며 높은 EPS 성장률 또한 긍정적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2	2023	2024P	2025F	2026F
매출액	328	334	318	351	377
영업이익	2	12	10	21	29
영업이익률(%)	0.7	3.6	3.1	5.9	7.6
세전이익	-5	0	0	14	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3	-6	-6	11	17
EPS(원)	-634	-315	-280	518	814
증감률(%)	적지	적지	적지	흑전	57.2
ROE(%)	-26.4	-16.3	-17.3	29.7	33.8
PER(배)	-6.8	-20.4	-12.0	6.5	4.1
PBR(배)	2.0	3.7	2.3	1.7	1.2
EV/EBITDA(배)	12.7	10.8	8.5	5.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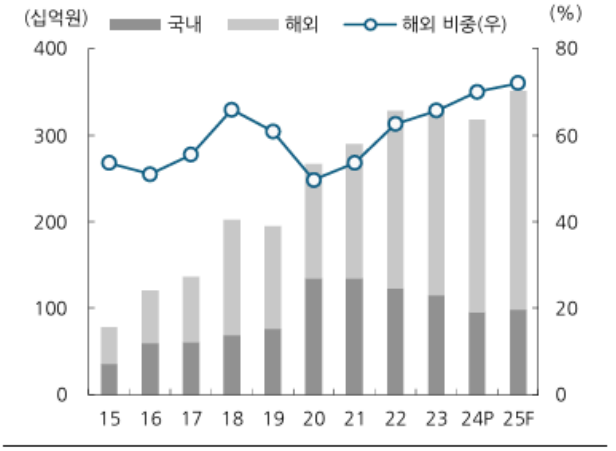
자료: 코스맥스엔비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코스맥스엔비티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코스맥스엔비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코스맥스엔비티 해외 실적 및 비중 추이



자료: 코스맥스엔비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0600] 키움종합차트 - KOSDAQ 시가총액[734(억)] 부채비율[639.3] 유보율[255.3] 액면[500] 자본금[103(억)] 결산[12월
222040
코스맥스엔
2025/02/26
3,560 ▲ 30 +0.85% 43,508 19.97% 0.21% 155백만 호가 3,570 3,560 시 3,595 고 3,610 저 3,535 매수 매도 평
코스맥스엔비티 5 20 60 120 224 150억/500억봉 표시 강세패턴 약세패턴
최고 7,330 (01/23)
배당락(0.00%)
배당락(0.00%)
배당락(0.00%)
최저 2,850 (09/04)
LC:24,91
HC:-51,43
거래량
43,508주(19,97%)
2022
2023
2024
2025
02/26

[0600] 키움종합차트 - KOSDAQ 시가총액[734(억)] 부채비율[639.3] 유보율[255.3] 액면[500] 자본금[103(억)] 결산[12월
222040
코스맥스엔
2025/02/26
3,560 ▲ 30 +0.85% 43,508 19.97% 0.21% 155백만 호가 3,570 3,560 시 3,595 고 3,610 저 3,535 매수 매도 평
코스맥스엔비티 증가 단순 3 120 증가 단순 45 8 224 15 10 증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최고 3,860 (10/29)
배당락(0.00%)
최저 2,850 (09/04)
LC:24,91
HC:-7,77
거래량
43,508주(19,97%)
2024/08
10
11
12
2025/01
02
02/26